

분석

흔들리는 합의 위에서 수집가가 거는 것

2027 학년도 6 월 고 3 모의평가 · 고 3 · 표기 프리셋 내신형

표기 범위 이 자료의 모든 기호는 아래 세 층으로만 이루어진다.

① 덩어리 [] 명사 덩어리 ·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 앞의 명사를 꾸미는 덩어리 { } 동사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덩어리

② 문장 안 / 끊어 읽는 지점 ● 원래 있어야 할 말이 빠져나간 자리 굵은 글씨 논리를 바꾸는 연결어 ㉠ ㉡ ㉢ 어법 출제 예상

→ 05 ㉣ 빈칸 출제 예상 → 실전편

③ 문장 사이 = 같은 뜻이 다른 말로 돌아옴 ↔ 앞말과 반대 (G)-(S) 넓은 말 뒤에 좁은 말 ⇒ 앞이 원인, 뒤가 결과 →

06

01 지문 원문 Original Text

① The dependent and shifting nature of art values, not only on the market but inherently, ㉠ is uppermost in the mind of today's art collector, whether he buys for himself or as the representative of an institution.

(G)-(S) Acquiring a work is acquiring a piece of art history

② Acquiring a work is acquiring a piece of art history, or it is acquiring nothing (beyond, that is, an object of personal enjoyment in the same class as a cat or a souvenir).

⇒ In signing his check

③ In signing his check the collector ㉡ asserts his belief in the future presence of the work as a significant point ㉢ attained by art as a whole.

↔ History, however, is open to anything

④ History, however, is open to anything and the merit of the chosen painting or sculpture has—at best—only the validation of a present-day consensus.

(G)-(S) This consensus is all but certain to be displaced

⑤ This consensus is all but certain ㉣ to be displaced, as others have been in the past.

⇒ In the last analysis

⑥ In the last analysis, committing himself to a painting is the collector's own act.

= Through it he courageously affirms

㉔ Through it he ㉓ **courageously** affirms not only his aesthetic judgment, from whatever source it be derived, but the conviction that ㉑ **he can predict where art is going.**

문장 사이에 찍힌 = ↔ (G)-(S) ⇒ 가 이 글의 뼈대다. 06 에서 하나씩 풀어 본다. 실선 밑줄 ㉓~㉓는 어법 출제 예상 지점으로 05 와 대응하고, 파선 밑줄 ㉑은 빈칸 출제 예상 지점이다.

02 직독직해 · 구문 분석 Chunk Reading & Syntax

㉑ [The dependent and shifting nature (of art values), / {**not only** on the market **but** inherently}], / is uppermost / {in the mind (of today's art collector)}, / {**whether** he buys for himself / or as the representative (of an institution)}.

The dependent and shifting nature 주어의 핵 · is 문장의 동사 · uppermost 주격보어 · whether he buys for himself 양보의 부사절
[(미술 작품 가치의) 의존적이고 변하기 쉬운 속성은, /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오늘날 미술 수집가의) 마음속에서}, / {그가 자신을 위해 구매하든 / 또는 (한 기관의) 대표자로서 구매하든}.

미술 작품의 가치가 단지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의존적이며 가변적이라는 속성은 오늘날의 미술 수집가가 자신을 위해 구매하든 한 기관의 대표자로서 구매하든 스스로의 마음 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㉒ [Acquiring a work] / is [acquiring a piece (of art history)], / **or** it is [acquiring nothing] / ({beyond, that is}, an object (of personal enjoyment) / (in the same class / as a cat or a souvenir)).

Acquiring a work 주어 · acquiring a piece 주격보어 1 · acquiring nothing 주격보어 2
[작품 하나를 소장하는 것은] / [(미술사의) 한 부분을 소장하는 것]이거나, /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소장하지 않는 것이다] / ({다시 말해}, (개인적 즐거움의) 대상을 제외하면 / (고양이나 기념품과 / 같은 부류에 드는)).
작품을 소장하는 것은 미술사의 한 부분을 소장하는 것이거나, (다시 말해, 고양이나 기념품과 같은 부류의 개인적 즐거움의 대상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소장하지 않는 것이다.

구문 · 이 문장의 동사는 is 이고 그 앞자리는 주어 자리이므로 동사원형이 올 수 없다. 그래서 Acquiring 이라는 준동사가 주어를 맡고, 보어 자리에도 같은 꼴 acquiring 이 와서 A 는 곧 B 라는 등식을 만든다. or 로 이어진 뒤쪽은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때 남는 결과를 말한다. 괄호 안의 beyond 는 앞말을 제외한다는 뜻이고, that is 는 앞말을 바꿔 말하겠다는 표시다. 곧 아무것도 소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개인적 즐거움의 대상마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in the same class as 는 앞의 object 를 뒤에서 한정해 그 물건의 격을 고양이나 기념품과 나란히 놓는다.

㉓ {In signing his check} / [the collector] asserts / [his belief (in the future presence (of the work))] / (as a significant point / (attained by art as a whole)).

In signing his check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구 · asserts 문장의 동사 · attained by art as a whole point 를 꾸미는 수식어

{수표에 서명함으로써} / [수집가는] 단언한다 / [자신의 믿음을 ((그 작품이) 미래에도 존재하리라는)] / (하나의 중요한 지점으로서 / (미술 전체에 의해 달성된)).

수표에 서명함으로써, 수집가는 미술 전체에 의해 달성된 하나의 중요한 지점으로서 그 작품이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단언한다.

④ [History], {however}, is open (to anything) / **and** [the merit (of the chosen painting or sculpture)] / has—at best—only [the validation (of a present-day consensus)].

however 흐름을 뒤집는 연결어 · the merit 주어의 핵 · the validation 목적어의 핵

[역사는], {하지만}, 열려 있다 (어느 것에나) / **그리고** [(선택된 그림이나 조각의) 가치는] / 기껏해야 지닌다 [(현재의 합의에 의한) 확인만을].

하지만 역사는 어느 것에나 열려 있고, 선택된 그림이나 조각의 가치는 기껏해야 현재의 합의에 의한 확인에 불과하다.

구문 · however 가 콤마 사이에 끼여 있지만 뒤집는 것은 이 문장 하나가 아니라 ㉓까지의 흐름 전체다. and 가 있는 것은 History is open to anything 과 the merit has only the validation 이라는 두 문장이므로, 이 문장은 절 두 개가 대등하게 나란히 선 구조다. 뒤 절의 주어의 핵은 merit 이고 of the chosen painting or sculpture 는 그것을 뒤에서 한정하므로 동사는 단수 has 다. 줄표 사이에 낀 at best 는 기껏해야라는 뜻으로 뒤의 only 와 함께 값을 한 번 더 깎아 내린다. validation of a present-day consensus 는 지금 시점의 합의가 그렇다고 확인해 준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⑤ [This consensus] is all but certain / {to be displaced}, / {**as** others have been in the past}.

This consensus 주어 · all but certain 주격보어 · as others have been 견주는 부사절

[이 합의는] 거의 확실하다 / {대체될 것이}, / {과거에 다른 합의들이 그래 왔듯이}.

이러한 합의는, 과거에 다른 합의들이 그래왔듯이, 대체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구문 · all but 은 거의라는 뜻이므로 all but certain 은 확실하지 않다가 아니라 거의 확실하다이다. but 을 그러나로 읽으면 문장의 뜻이 정반대가 된다. displace 는 목적어를 반드시 가지는 동사인데 이 자리에는 목적어가 없고, 합의는 밀어내는 쪽이 아니라 밀려나는 쪽이므로 to be displaced 라는 수동 표현을 쓴다. 문미의 as 는 견조를 나타내고, others 는 앞에 나온 consensus 를 대신 받아 과거의 다른 합의들을 가리킨다. have been 뒤에는 displaced 가 되풀이를 피해 빠져 있다.

⑥ {In the last analysis}, / [committing himself to a painting] / is [the collector's own act].

committing himself to a painting 주어 · is 문장의 동사 · the collector's own act 주격보어

{결국}, / [그림 한 점을 선택해 자신을 거는 것은] / [수집가 자신의 행위]이다.

결국, 그림 한 점을 선택해 자신을 거는 것은 수집가 자신의 행위이다.

구문 · In the last analysis 는 이것저것 따진 끝에 남는 결론을 꺼낼 때 쓰는 표현으로, 여기서부터 마무리가 시작된다. 주어 자리를 맡은 것은 committing 이 이끄는 덩어리이고 동사는 is 다. commit oneself to 는 자신을 어디에 걸어 물러설 자리를 없앤다는 뜻이므로 단순한 구매보다 훨씬 무거운 말이다. 보어 the collector's own act 에서 own 이 하는 일이 이 문장의 핵심이다 — 앞에서 기댈 곳으로 제시했던 시장과 합의를 모두 걷어 내고 나면 남는 것은 수집가 본인뿐이라는 뜻이다.

⑦ {Through it} / [he] courageously affirms / **not only** [his aesthetic judgment], / {from whatever source it be derived}, / **but** [the conviction **that** he can predict / where art is going].

courageously affirms 문장의 동사 · his aesthetic judgment 목적어 1 · the conviction 목적어 2

{그 행위를 통해} / [그는] 용기 있게 확인한다 / [자신의 미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 {그것이 어떤 근원에서 유래되었든}, / **또한** [확신도 그가 예측할 수 있다는 / 미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러한 행위를 통해 그는, 그것(자신의 미학적 판단)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유래되었든, 자신의 미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스스로 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확신 또한 용기 있게 확인한다.

03 핵심 구문 해설 Key Structures

핵심 구문 1 문장 ㉠

[The dependent and shifting nature (of art values), / {**not only** on the market **but** inherently}], / is uppermost / {in the mind (of today's art collector)}, / {**whether** he buys for himself / or as the representative (of an institution)}.

[(미술 작품 가치의) 의존적이고 변하기 쉬운 속성은, /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오늘날 미술 수집가의) 마음속에서}, / {그가 자신을 위해 구매하든 / 또는 (한 기관의) 대표자로서 구매하든}.

주어의 핵은 nature 하나다. of art values 는 그 nature 를 뒤에서 한정하고, 콤마로 앞뒤가 묶인 not only on the market but inherently 는 dependent and shifting 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밝히려고 끼워 넣은 삽입 수식어다. 이 둘을 손으로 가리면 The nature is uppermost 라는 뼈대가 드러나고, 그래서 동사는 단수 is 다. 삽입 수식어 안의 values 나 market 에 수를 맞추면 틀린다. uppermost 는 위치가 아니라 순위를 말하는 최상급 표현으로, 여기서는 수집가의 머릿속에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문미의 whether A or B 는 둘 중 어느 쪽이어도 결론이 같다는 양보를 나타내므로 어느 쪽인지를 고르는 선택이 아니다.

핵심 구문 2 문장 ㉡

{In signing his check} / [the collector] asserts / [his belief (in the future presence (of the work))] / (as a significant point / (attained by art as a whole)).

{수표에 서명함으로써} / [수집가는] 단언한다 / [자신의 믿음을 ((그 작품이) 미래에도 존재하리라는)] / (하나의 중요한 지점으로서 / (미술 전체에 의해 달성된)).

In signing 은 서명하는 그 순간에, 곧 서명이라는 행위로서라는 뜻이다. 이 문장에서 정동사는 asserts 하나뿐이다. 앞의 In signing his check 은 전치사가 이끄는 덩어리라 문장의 동사가 될 수 없으므로, asserts 를 준동사 꼴로 바꾸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목적어는 his belief 다. in the future presence of the work 은 그 belief 의 내용을 채우는 부분이므로 무엇을 믿는가를 여기서 읽어야 한다. 문미의 as a significant point 는 그 작품을 어떤 자격으로 보는가를 밝히고, attained by art as a whole 은 바로 앞의 point 를 뒤에서 꾸민다. 그 지점은 미술 전체가 도달한 것, 곧 도달의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attained 를 쓴다. 뒤에 by 가 붙어 행위의 주체를 따로 밝히고 있는 것도 같은 신호다. point 를 행위의 주체로 잘못 잡아 attaining 으로 읽으면 뜻이 뒤집힌다.

핵심 구문 3 문장 ㉢

{Through it} / [he] courageously affirms / **not only** [his aesthetic judgment], / {from whatever source it be derived}, / **but** [the conviction **that** he can predict / where art is going].

{그 행위를 통해} / [그는] 용기 있게 확인한다 / [자신의 미학적 판단] **뿐만 아니라**, / {그것이 어떤 근원에서 유래되었든}, / **또한** [확신도 그가 예측할 수 있다는 / 미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문두의 it 은 ㉠의 the collector's own act 를 받는다. 동사는 affirms 이고 그 앞자리는 동사를 꾸미는 자리이므로 부사 courageously 가 온다. not only A but B 가 있는 것은 목적어 두 개, 곧 his aesthetic judgment 와 the conviction 이다. 그 사이에 낀 from whatever source it be derived 는 판단의 출처가 어디든 상관없다는 양보를 엮은 삽입 부분이므로, 손으로 가리고 나면 affirms not only A but B 라는 뼈대가 곧바로 보인다. 마지막의 that 은 conviction 의 내용을 채우는 표시이고, where art is going 은 predict 의 목적어 자리에서 의문사가 이끄는 덩어리로 들어가 있으므로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뒤집지 않는다.

04 어휘 정리 Vocabulary

어휘 / 표현	한국어 의미	지문 내 쓰임
★ dependent a.	남에게 기대는, 의존적인	The dependent and shifting nature of art values — 미술 작품 가치의 의존적이고 변하기 쉬운 속성
★ inherently ad.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not only on the market but inherently —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 uppermost a.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is uppermost in the mind of — 마음속에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다
★ acquire v.	손에 넣다, 소장하다	Acquiring a work is acquiring a piece of art history — 작품을 소장하는 것은 미술사의 한 부분을 소장하는 것이다
souvenir n.	기념품	in the same class as a cat or a souvenir — 고양이나 기념품과 같은 부류에 드는
★ assert v.	단언하다, 잘라 말하다	the collector asserts his belief — 수집가는 자신의 믿음을 단언한다
★ attain v.	도달하다, 이루어 내다	a significant point attained by art as a whole — 미술 전체가 도달한 하나의 중요한 지점
★ merit n.	값어치, 뛰어난 점	the merit of the chosen painting or sculpture — 선택된 그림이나 조각의 가치
★ validation n.	그렇다고 확인해 줌, 인정	only the validation of a present-day consensus — 현재의 합의에 의한 확인만
★ consensus n.	합의, 여럿이 함께 내린 판단	a present-day consensus — 지금 이 시점의 합의

어휘 / 표현	한국어 의미	지문 내 쓰임
★ displace v.	밀어내다, 자리를 대신 차지하다	is all but certain to be displaced — 대체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all but phr.	거의, 사실상	all but certain — 거의 확실한
commit v.	~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다, ~에 자신을 걸다	committing himself to a painting — 그림 한 점을 선택해 자신을 거는 것
★ aesthetic a.	미학적인, 아름다움에 관한	not only his aesthetic judgment — 자신의 미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 conviction n.	굳은 확신	but the conviction that he can predict — 그가 예측할 수 있다는 확신 또한
derive v.	유래하다, 끌어내다	from whatever source it be derived — 그것이 어떤 근원에서 유래되었든

★ 표시는 출제 타겟 어휘로, 실전편·훈련편에서 반드시 1 회 이상 출제된다.

05 어법 포인트 Grammar Points

번호	포인트 · 규칙	출제 가능 유형
GP-01 ①	삽입 수식어를 건너뛴 주어의 핵에 동사의 수를 맞추기 문장 ㉠ 출제빈도 ★★★ is / are 주어의 핵이 단수인가 복수인가 주어의 핵은 nature 하나다. of art values 는 그 nature 를 뒤에서 한정하는 부분이고, 콤마로 앞뒤가 묶인 not only on the market but inherently 는 끼워 넣은 수식어다. 둘을 손으로 가리면 The nature is uppermost 라는 뼈대가 남으므로 단수 is 를 쓴다. 함정 · 삽입 수식어 안의 market 이나 of 뒤의 복수형 values 에 수를 맞추려는 함정	어법판단 · 어법오류수정
GP-02 ②	문장의 정동사 자리 — 준동사는 그 자리를 맡을 수 없다 문장 ㉡ 출제빈도 ★★★ asserts / asserting 정동사 자리인가 준동사 자리인가 이 문장에는 시제를 지닌 동사가 asserts 하나뿐이다. 앞의 In signing his check 은 전치사가 이끄는 덩어리라 문장의 동사가 될 수 없고, asserting 으로 바꾸면 문장 전체에 동사가 없어진다. 주어 the collector 를 받는 자리이므로 시제와 수를 갖춘 asserts 를 쓴다. 함정 · 앞에 signing 이 있으니 뒤도 같은 꼴로 맞춰야 한다고 여겨 asserting 을 고르는 함정. 형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를 먼저 세어야 한다	어법판단 · 어법오류수정 · 문장전환

번호	포인트 · 규칙	출제 가능 유형
GP-03 ㉓	앞의 명사와 분사의 관계 — 하는 쪽인가 당하는 쪽인가 문장 ㉓ 출제빈도 ★★★ attained / attaining 꾸밈을 받는 명사가 행위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attained by art as a whole 은 바로 앞의 a significant point 를 뒤에서 꾸민다. 그 지점은 미술 전체가 도달한 것, 곧 도달의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attained 를 쓴다. 뒤에 by 가 붙어 행위의 주체를 따로 밝히고 있는 것도 같은 신호다. 함정 · point 를 행위의 주체로 잘못 잡아 attaining 을 고르는 함정. 그렇게 읽으면 지점이 미술을 도달한다는 뜻이 되어 말이 되지 않는다	어법판단 · 어법오류수정
GP-04 ㉔	주어가 행위의 대상일 때의 수동 표현 문장 ㉔ 출제빈도 ★★ to be displaced / to displace 주어가 밀어내는 쪽인가 밀려나는 쪽인가 displace 는 목적어를 반드시 가지는 동사인데 이 자리에는 목적어가 없다. 게다가 뒤의 as others have been 이 앞의 형태를 그대로 받아 되풀이하므로 합의는 밀려나는 쪽이다. 따라서 to be displaced 라고 쓴다. 함정 · certain 뒤라는 이유만으로 능동형을 반사적으로 고르는 함정. 목적어가 있는지 먼저 세어야 한다	어법판단 · 어법오류수정
GP-05 ㉕	동사를 꾸미는 자리의 부사 문장 ㉕ 출제빈도 ★★★ courageously / courageous 동사를 꾸미는 자리인가 보어 자리인가 이 문장의 동사는 affirms 이고 그 앞자리는 동사를 꾸미는 자리다. 형용사 courageous 는 명사를 꾸미거나 보어로 쓰이는데 이 자리는 둘 다 아니므로 부사 courageously 를 쓴다. 함정 · 주어 he 바로 뒤라는 이유로 형용사를 놓아도 된다고 여기는 함정	어법판단 · 어법오류수정

06 논리 지도 Logic Map

도입 ①② > 전개 ③ > 전환 ④⑤ > 결론 ⑥⑦

6-1 문장은 이렇게 이어진다

연결	관계	단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① → ②	(G)-(S)	Acquiring a work is acquiring a piece of art history	① 은 가치가 흔들린다는 사실이 수집가의 머릿속을 차지한다고만 말하고 그것이 구매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비워둔다. ② 가 그 빈자리를 채운다 — 소장은 미술사의 한 조각을 얻는 일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나 둘 중 하나로 갈린다. 큰

연결	관계	단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관찰 하나가 두 갈래의 결과로 내려앉는 자리다.
② → ③	⇒	In signing his check	② 가 소장의 값어치를 미술사에 남는가 하나에 걸어 두었다. 그것이 원인이고, ③ 에서 수표에 서명하는 행위가 곧 그 작품의 미래를 단언하는 선언이 되는 것이 결과다. 값이 미술사에 달려 있으므로 지불이 곧 예언이 된다.
③ → ④	↔	History, however, is open to anything	③ 의 수집가는 그 작품이 미래에도 중요한 지점으로 남으리라고 믿는다. ④ 는 정반대를 놓는다 — 역사는 어느 쪽으로도 열려 있어 그 미래를 보증하지 않고, 지금 손에 쥔 것은 현재의 합의가 짝어 준 확인뿐이다. 맞서는 측은 미래의 보증인가 현재의 합의인가다.
④ → ⑤	(G)-(S)	This consensus is all but certain to be displaced	④ 가 마지막에 놓은 낱말은 consensus 다. ⑤ 는 그 낱말 하나를 집어 들어 운명을 좁혀 말한다 — 과거의 다른 합의들이 그랬듯 이것도 밀려난다. 시야가 문장 전체에서 낱말 하나로 좁아지는 자리이고, 그래서 ⑤ 는 새 논점이 아니라 ④ 의 마지막 낱말에 붙은 각주에 가깝다.
⑤ → ⑥	⇒	In the last analysis	⑤ 에서 기댈 수 있는 바깥 근거가 모두 지워졌다. 그 결과 ⑥ 에서 판단의 자리가 수집가 본인에게로 돌아온다. 보증인이 사라졌으므로 서명한 사람이 스스로 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⑥ → ⑦	=	Through it he courageously affirms	⑥ 이 그것을 수집가 자신의 행위라고 이름 붙였다면, ⑦ 은 같은 행위를 안에서 열어 보인다 — 그 행위가 무엇을 확인하는가. 새 사실이 아니라 ⑥ 의 own act 를 두 겹으로 풀어 쓴 같은 사태의 다른 얼굴이다.

6-2 같은 말이 다른 얼굴로 돌아온다

중요한 말은 반복된다. 그러나 영어는 같은 단어를 두 번 쓰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개념은 얼굴을 바꿔 되돌아온다. 아래 첫 사슬은 이어 두었다. 나머지는 개념 이름만 준다 — 훈련편에서 직접 이어 보라.

개념	되풀이되는 표현의 사슬
가치를 정해 주는 것이 밖에 있다는 감각 (시범)	① The dependent and shifting nature of art values = ④ only the validation of a present-day consensus = ⑤ certain to be displaced
미술사 안의 한 자리로서의 작품	② acquiring a piece of art history = ? → 훈련편 A
판단을 떠안은 개인	① whether he buys for himself = ? ? → 훈련편 A

6-3 맞서는 축

한쪽		다른 쪽	무엇을 두고 갈리는가
㉔ acquiring a piece of art history	↔	㉔ acquiring nothing	같은 구매가 갈라지는 두 결과 — 미술사에 남는가 아무것도 아닌가
㉕ the future presence of the work	↔	㉕ all but certain to be displaced	작품과 그 값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 남는가 밀려나는가

6-4 여기까지 읽었다면 다음은 이렇게 온다

㉔ 까지 읽었다면 글은 두 가지를 끝냈다. 하나는 기댈 만한 바깥 근거를 하나씩 지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 수집가 본인을 세운 것이다. 그러면 남은 질문은 하나뿐이다 —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무엇을 걸고 있는가. 그러니 뒤에 올 문장은 새 사실을 들여오는 문장이 아니라 ㉔의 own act 를 안에서 열어 보이는 문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열어 보인다면 두 겹일 가능성이 높다. ㉔ 이 시장과 본질을 나란히 놓았고 ㉔가 합의와 가치를 나란히 놓았듯, 이 글은 계속 두 향을 짚지어 말해 왔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을 만나면 새 정보를 찾지 말고 무엇과 무엇이 짚지어졌는지부터 세어라.

한 줄 요지

미술의 가치는 언제나 갈아치워질 현재의 합의 위에 서 있으므로, 작품을 산다는 것은 결국 수집가가 자신의 미적 판단과 미술의 앞날에 대한 예측에 스스로 가는 용기 있는 행위다.

07 배경지식 Background

미술품의 값은 시장에서 매겨지지만, 그 값을 떠받치는 것은 이 작품이 미술사에 남을 것인가라는 평가다. 그런데 그 평가는 어느 시기의 비평가와 미술관과 수집가들이 함께 내린 판단, 곧 합의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20 세기 미술사는 그 합의가 여러 차례 뒤집힌 기록이기도 하다 — 당대에 외면받던 화풍이 뒷날 정전이 되고, 한때 최고가를 기록한 작가가 뒷날 잊히는 일도 있었다. 이 글은 그런 조건에서 수표에 서명하는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따진다. 미술 시장에서 값을 매기는 자리와 미술사에서 자리를 매기는 자리는 서로 다르다. 앞의 자리는 경매장과 화랑이고, 뒤의 자리는 전시와 도록과 비평문이 쌓여 만들어진다. 수집가가 사는 물건은 앞의 자리에서 거래되지만, 그 거래의 값을 오래 지켜 주는 것은 뒤의 자리다. 그래서 큰 수집가일수록 소장품을 미술관에 빌려 주거나 기증해 미술사 쪽 자리를 함께 만들려 한다. 이 글이 서명의 순간을 예측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두 자리 사이의 시차에 있다.

여기까지가 읽는 자리다. 이 지문은 훈련편 「연결 찾기」 A · B · C 로 이어진다. 06 을 덮고 훈련편을 펴라 — 06 을 보면서 푸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